

첫째날_2월 17일(수요일)

이런 꿈은 어떨겠소?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출발하였다.
그는 도중에 해가 저서 하룻밤을 보내려고 한 곳에 돌을 베고 누웠는데
꿈에 보니 끝이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서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다.
<창세기 28:10-12 현대인의 성경>

꿈을 비는 마음

개똥 같은 내일이야
꿈 아닌들 안 오리오마는
조개속 보드라운 살 바늘에 찔린 듯한
상처에서 저도 몰래 남도 몰래 자라는
진주 같은 꿈으로 잉태된 내일이야
꿈 아니곤 오는 법이 없다네

그러니 벗들이여!
보름달이 뜨거든 정화수 한 대접 떠 놓고
진주 같은 꿈 한자리 점지해 줘시라고
천지신명께 빌지 않으려나!

벗들이여!
이런 꿈은 어떨까요?
155마일 휴전선을
해뜨는 동해바다 쪽으로 거슬러 오르다가 오르다가
푸른 바다가 굽어 보이는 산정에 다달아
국군의 피로 뒤범벅이 되었던 북녘땅 한 삼
공산군의 살이 썩은 남녘땅 한 삼씩 떠서
합장을 지내는 꿈,
그 무덤은 우리 5천만 거래의 순례지가 되겠지
그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다 보면
사팔뜨기가 된 우리의 눈이 제대로 돌아
산이 산으로, 내가 내로, 하늘이 하늘로,
나무가 나무로, 새가 새로, 짐승이 짐승으로,
사람이 사람으로 제대로 보이는
어처구니없는 꿈 말이외다

그도 아니면
이런 꿈은 어떨까요?
철들고 샘들었다는 것들은 다 죽고
동남동녀들만 남았다가
쌍쌍이 그 앞에 가서 화촉을 올리고
- 그랄지, 거기는 박달나무가 있어야지 -
그 박달나무 아래서 뜨겁게들 사랑하는 꿈,
그리고는 동해바다에서 치솟는 용이 품에 와서 안기는 태몽을 얻어
딸을 낳고
아침 햇살을 타고 날아오는
황금빛 수리에 덮치는 꿈을 꾸고
아들을 낳는
어처구니없는 꿈 말이외다

그도 아니면
이런 꿈은 어떨겠소?
그 무덤 앞에서 샘이 솟아
서해 바다로 서해 바다로 흐르면서
휴전선 원시림이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 만주로 펼쳐지고
한려수도를 건너뛰어 제주도까지 뻗는 꿈,
그리고 우리 모두
짐승이 되어 산과 들을 뛰노는 꿈,
새가 되어 신나게 하늘을 나는 꿈,
물고기가 되어 펄떡펄떡 뛰며 강과 바다를 누비는
어처구니없는 꿈 말이외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밝고 싱싱한 꿈 한자리
평화롭고 자유로운 꿈 한자리
부디 점지해 주사이다

2021년 사순절을 열며 문익환 목사의 시 '꿈을 비는 마음'을 골랐습니다. 올해는
살기 좋아졌으면, 조금 더 사랑했으면, 평화가 이뤄졌으면 꿈을 꾸어봅니다. 혼자
아닌 우리 모두 같은 꿈을 꾸다면 현실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 하늘이 열리고
평화가 이뤄지는 꿈을 꿉니다. 이 꿈 위에 은총을 부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날_2월 18일(목요일)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 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요한복음 14:27 표준새번역 성경>

예수님은 지금 세상을 떠나시는 당신의 수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줍니다. 스승을 따르던 제자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평화를 주시겠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과 다른 평화라니 도대체 예수님께서 주시는 어떤 평화일까요?

예수님의 평화는 근심과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 두려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힘들여 쌓아온 모든 것들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일까요? 햇살이 퍼지면 사라질 것 같은 안개에 영혼이 빼앗기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만나 평화로워지려면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자유로운 삶에서 회복됩니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미래에 대한 근심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셋째날_2월 19일 (금요일)

하루를 살아도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정한 때와 기한이 있다.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거둘 때,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헐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돌을 던질 때와 돌을 모을 때, 포옹할 때와 포옹하지 않을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간직할 때와 던져 버릴 때, 짓을 때와 꺾을 때, 침묵을 지킬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로울 때가 있다.<전도서 3:1-8 현대인의 성경>

평화롭게

하루를 살아도
온 세상이 평화롭게
이들을 살더라도
사흘을 살더라도 평화롭게

그런 날들이
그 날들이
영원토록 평화롭게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도 평화롭게 살게 도와주소서.
나, 가족들, 이웃들 모든 자연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넷째날_2월 20일(토요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 오는구나.” <시편 121:1-2 현대인의 성경>

미움이 있는 곳에서,
다툼이 있는 곳에서,
분열이 있는 곳에서
평화를 위해 애쓰고 눈물 흘리는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 외롭게 있지 않습니다.
평화를 위한 당신의 여정에 하나님과 평화의 일꾼들이 동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과 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평화의 하나님,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찬 우리 맘을 당신의 평화로 채워 주소서.
우리의 온 가정, 교회와 공동체, 세계의 모든 도시와 온 나라가 하늘의 평화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섯째날_2월 22일 (월요일)

평화로 가는 길은



그때 도마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는 너희가 내 아버지를 알고 또 보았다.” <요한복음 14:5-7 현대인의 성경>

평화로 가는 길은

이 둥근 세계에
평화를 주심사고 기도하지만
가시에 찔려 피나는 아픔은
날로 더해갑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왜 이리 먼가요

얼마나 더 어둡게 부서져야
한줄기 빛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멀고도 가까운 나의 이웃에게
가깝고도 먼 내 안의 나에게
맑고 깊고 넓은 평화가 흘러
마침내 하나로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울겠습니다

얼마나 더 낮아지고 선해져야
평화의 열매 하나 얻을지
오늘은 꼭 일러주시면 합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평화의 길을 가도록 남과 북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쟁과 적대와 대결 보다는 신뢰와
단합, 평화의 길을 우리가 걸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을 축복하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글: 이해인 수녀, 사진: 김찬국 콜로라도 2016

여섯째날_2월 23일 (화요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지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곱 번만 아니라 일흔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여라. <마태복음 18:21-22 현대인의 성경>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번이라도

어떻게 하면 형제와 자매, 나라와 민족들이 보복과 갈등의 악순환을 끊고 평화와 존중의 선순환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복음서에서 제자 베드로에게 들려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마태 18: 22). 용서하며 살아가는 법을 익힐 때,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말을 이끄시어 우리가 우리의 자매와 형제를 용서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